멀티헤비테이션의 유형화 및 관련 주생활 라이프스타일 현황조사

A Classification of Multi-habitation and Site Survey of the Related Lifestyles

최정민*
Choi, Jung-Min

강진만**
Kang, Jin-Man

손혜미***
Son, Hye-M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multi-habitation, a new phenomenon in which inhabitants in urban areas reside in primarily condominiums on weekdays and retreat to dwellings in rural areas on weekends, and to examine the various life styles related to multi-habitation. Through the interviews and site surveys, three major subtypes of multi-habitation were identified to support the theoretical framework: interchange style, sedentary style, and special style. Findings include that first, in order to discuss multi-habitation, the terms primary home and secondary home are introduced. Based on the concept of primary home and secondary home, a variety of multi-habitation can be described using spatial locations in urban and rural areas. Second, systematic deregulation for the second home ownership should be made to promote citizens' interchange. Also urban residents should make more efforts to integrate into rural communities. Third, for some remote areas such as Cheju Island, it is observed that multi-habitation is limited by cost, time, and lifestyle.

Keywords : Multi-Habitation, Semi-Sedentism, Lifestyle, Green Tourism

주요어 : 멀티헤비테이션, 반정주, 라이프스타일, 녹색관광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선행연구에서는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도시민이 그들의 생활터전인 도시지역을 정주무대로 하면서, 농어촌 지역 등 비도시지역을 왕래·활동하면서 거주하는 주생활 라이프스타일을 반정주(半定住) 형태의 멀티헤비테이션(이하, '멀티헤비')이라 명명하고,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동시에 수도권 소재 도시민을 대상으로 멀티헤비에 대한 수요 특성을 알아보았는데, 주요 설문내용은 멀티헤비에 대한 관심도, 목적, 희망지역, 거주형태, 멀티헤비 정착을 위한 각종 정비조건(자연환경, 인문환경, 행정지원) 등이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하였던 멀티헤비의 개념적 정의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개인에 있어 삶의 터전인 주거의 도농 공간적 위상 관계와, 교류에서 정주로의 이행단계를 기초로 하여 멀티헤비 관련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이렇게 유형화한 사례 중에서 세 가지형태의 라이프스타일을 추출하여, 현장 실태 및 심층 인터뷰조사를 통해 향

후 국내 멀티헤비의 전개 방향성이라는 관점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 도농 교류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농어촌 체험관광 사업을 대상으로 주거 및 숙박관련 시설에 대한 현황조사('사례A'), 2)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정년퇴직의 도래와 맞물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시통근형' 실천자를 대상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조사('사례B'), 3) 정보통신 및 교통기술의 발달로 점점 넓어지는 생활권 및 기업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전원 거점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조사('사례C')가 그것이다.

이같이 다양한 형태의 라이프스타일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농어촌은 시장 개방의 가속화로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 도시는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도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의 질 추구 경향(친자연·건강·휴식 등)과 맞물려, 도시민은 도시에서 찾기 어려운 것을 전원에서 얻고, 농어촌민은 도시인구의 유입 및 활동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말하자면 상생효과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시민은 농어촌 체험을 통하여 심적 안정과 전원 교육 등 자연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농어촌민은 도시민의 방문·활동에 의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도시로부터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교류(exchange)가 갖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림 1>은 도농교류¹⁾가 갖는 상생의 의미를 멀티헤비테이션 관점에서 도식화한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도 상생을 위한 도농교류 필요성에 맞물려 다양한 사업²⁾을 추진 중에 있다.

*정회원(주거자,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 부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

***정회원, 건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이 논문은 20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31-C00333).

이 논문은 2009학년도 건국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그림 1. 도농교류가 갖는 상생의 의미와 주생활 패턴에 주목한 멀티에비테이션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고찰 및 현장조사와 병행된 심층인터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 현장조사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각 유형에 대해 담당실무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사례A의 농어촌 체험사업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각 체험마을을 방문하여 운영위원장과 사무장 등 실무 담당자들과 면담조사를 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국내 전반적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제주도 체험사업의 경우에는 제주도청을 방문하여 도농교류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상황, 평가 등에 있어서 관할 지자체의 대응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례B의 도시통근형 라이프스타일 조사의 경우에는 심층 밀착형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매스컴에서 알려진 사례를 추적, 경기도 양평에서 이러한 주생활을 영위하는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례C는 제주도와 같은 원경 전원거점형 지역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생활 실태를 알아본 것인데, 조사대상은 2006년 기업 본사 기능의 일부를 제주도로 옮기고 최근에는 본사 이전 착공식을 올려 화제가 된 '다음(Daum)의 제주 글로벌미디어 센터(GMC)'를 방문하여 담당부서(대외협력과)와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사례A~C의 현장조사는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는데, 구체적인 조사 개요와 방법에 대해서는 각 사례별로 후술하겠다.

II. 기존연구 고찰 및 멀티에비테이션 유형화

1. 기존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 기존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 1) “도농교류”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2) 예컨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등이 있다.

<표 1>과 같다. 즉, 멀티에비 및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농어촌 체험사업 등 활성화에 관한 연구(소프트웨어 측면), 숙박 및 거주시설에 관한 연구(하드웨어 측면)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귀농 및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중에서 허지현외(2008)의 연구가 눈에 띄는데, 여기서는 라이프스타일과 농촌체험관광 선호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부래미마을’ 등 네 곳의 체험관광지를 찾은 사람들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집계된 자료를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4가지 라이프스타일(성취지향형, 자아발전형, 문화추구형, 여가지향형)과 5가지 선호형태(농가체험중시, 자연체험중시, 놀이체험중시, 건강체험중시, 역사체험중시)로 분류하고, 연령, 학력, 소득의 세 가지 제어변수를 이용·제어하면서 라이프스타일별 체험선호와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표 1. 국내 주요 관련연구

분류	관련 연구
라이프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조인트분석을 이용한 광주광역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농촌관광지 선호체계 분석(강평년, 2005) •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귀농귀촌 10 사례 소개(송미령 외, 2006) •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농촌관광 선호도 및 참여도와의 인과관계 분석(송화성 외, 2006) • 농촌체험 관광지 181명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과 체험관광 선호도에 관한 통계분석(허지현 외, 2008)
체험 사업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지역을 사례로 농촌활성화사업의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모색(최효승, 2005) • 전라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체험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분석(송광인 외, 2005) •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문행태의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이샘 외, 2009) •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대상으로 민속학적 관점에서 사례지역의 전통성 분석 비교(김재호, 2007)
숙박 · 거주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숙박업(민박)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제시(박시현 외, 2003) •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농가민박의 편의시설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박덕병 · 이민수, 2006) • 경기지역 펜션을 중심으로 고급민박주택의 주거환경의 문제 제기 및 개선방안 제시(이창석 · 이희국, 2003) • 펜션의 제도 및 운영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오동훈 외, 2003) • 국내 펜션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문혁 외, 2007)

다음으로, 체험사업의 종류 및 활성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도농통합 관점에서 각종 체험사업을 매개로 낙후된 농촌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주요내용이다. 즉, 체험관광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정책, 마을 및 프로그램 계획, 운영현황 분석, 어메니티 자원개발 등의 관점에서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체험사업과 관련하여 숙박 및 거주 시설 관련 연구는 민박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 펜션의 실태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예컨대, 송광인의(2005)는 체험관광은 지역민들만의 노력뿐 아니라 숙박시설부터 교통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연계되고 이를 네트워크하여 지자체들이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시급하다고 역설하였다.

2. 멀티헤비 관련 라이프스타일의 유형화

1) 주택의 위상 및 도농 지역에 따른 분류

전술한 바와 같이 멀티헤비의 특성으로 ‘반정주’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였는데, 반정주란 지역사회에 완전히 정착하는 정주와 잠시 머무는 방문 사이에 위치하는 동태적 형태의 거주 패턴이다. 본고에서는 개인이 이용하는 주택을 사용빈도와 위상 관계에서 ‘거점주택’과 ‘활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거점주택(primary home)이란, “직장, 생계, 라이프스타일 등에 의해 개인의 주된 주생활이 영위되는 곳으로 사용빈도 및 점유시간, 위상 등에 있어서 중심이 되며,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되는 주택”으로 정의한다. 활동주택(secondary home)은 “거점주택과 떨어진 곳에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주택”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개념 정의에 있어서 각 주택에 있어서의 소유관계(자가/임차)나 가격, 설비 등의 요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거점주택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개소로 한정되는데 비해, 활동주택은 그러하지 않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는 거점주택과 활동주택의 구분에 있어서 주민등록지의 존재 여부가 결정적인 분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활동주택이란 일종의 ‘세컨드하우스’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통상 세컨드하우스라고 하면, 도시민에게 있어서 전원지역에 위치한 주말별장 정도로 이해되곤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하는 활동주택의 개념에는 이러한 세컨드하우스의 의미까지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상기 거점주택과 활동주택이라는 구분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라는 공간적 위치 관계와 연계시켜 분류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공간적으로 도시지역(urban area)과 전원지역(rural area)으로 구분한 것이고, 세로축은 상기 주택의 위상관계에 따라 거점주택과 활동주택으로 구분한 것으로, 이를 서로 대응시키면 다음 네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그림 2. 공간적 위치와 주택의 위상에 따른 멀티헤비의 유형

① <도시·거점-전원·활동형>(UP·RS): 멀티헤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도시지역에 거점주택이 있고 전원지역에 활동주택이 있는 형태이다. 예컨대, 도시지역에 자가의 아파트가 있고 전원에 주말별장 형태의 세컨드하우스를 갖는 경우이다.

② <전원·거점-도시·활동형>(RP·US): 전원지역에 거점주택이, 도시지역에 활동주택이 있는 형태이다. 예컨대, 전원거점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에 전세나 자가의 아파트를 주말 등을 이용해서 방문하는 경우이다.

③ <도시·거점-도시·활동형>(UP·US): 도시지역에 거점주택과 활동주택이 동시에 위치하는 것으로, 생활권³⁾역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생활권내’와 ‘생활권외’로 나눌 수 있다. 생활권외의 전형적인 예는, 두 개의 도시에서 생활하는 주말부부처럼 대도시에 거점주택이 있고 지방도시에 활동주택이 있는 경우라 하겠다.

④ <전원·거점-전원·활동형>(RP·RS): 전원지역에 거점주택과 활동주택이 동시에 위치하는 경우인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원거점지역과의 관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도시민의 관점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 형태는 논의의 실익도 그다지 크지 않고 또한 발생할 경우의 수도 많지 않은 편이다.

2) 공간적 규모와 위치에 따른 멀티헤비의 유형

위에서 주택을 도시지역과 전원지역으로 두 가지로 대별하였지만, 공간적 규모와 그 위치 관계에 따라 더욱 세분할 수 있다. 먼저, 본고에서는 도시지역을 대도시(광역시)와 중소도시로 구분하고, 전원지역은 도시지역과의 관

3) 일반적으로 생활권은 위계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소생활권(근린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생활권별 규모는 도시의 여건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생활권의 설정기준으로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고 있는데, 지형지세와 도로 등의 물리적 요소, 행정구역, 시가지의 형성과 발전, 도시기능 및 토지이용 특성, 생활환경과 주거 및 주민 등의 인문적 특성과 같은 것이 주요사항이다(최정민 외, 2006: 34-35).

도·농 · 도시근교지역 : 도시 근교지역으로 자동차로 편도 1~2시간 생활권역
 관계 · 전원거점지역 : 읍면 등 전원지역 내의 거점지역
 · 전 원 지 역 : 농어산촌 지역으로서 전원생활 지역

그림 3. 공간적 규모와 위치관계에 따른 멀티헤비 범위

계에서 다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먼저, ‘도시근교지역’은 도시 근교에 위치한 곳으로 도심에서 자동차로 편도 약 1~2시간 거리에 위치한 전원지역이다. 여기서 1~2시간의 설정 근거는,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멀티헤비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특성에서 멀티헤비를 희망하는 지역까지의 거리가 자동차로 1~2시간 소요되는 곳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도시 규모에 따라 공간적 범위는 달라지는데, 예컨대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도심에서 전원지역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거점주택(도시)과 활동주택(전원)까지의 평균 거리는 짧아지게 된다. 다음으로, ‘전원거점지역’은 지방의 읍면 정도의 규모로, 주변에 전원지역이 전개되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3>이다.

이러한 형태의 멀티헤비 유형의 세분화는 앞서 ‘주택의 위상 및 도농 지역에 따른 분류’에서 더 나아가 멀티헤비 유형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 · 거점-전원 · 활동형>의 경우, ①_A는 대도시에서 거점주택이, 도시근교에 활동주택이 위치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유형은 활동주택을 주말별장과 같은 세컨드하우스 형태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 사례 및 활용 빈도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①_B는 활동주택이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전원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고향의 농가를 이용하여 시골을 방문하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② <전원 · 거점-도시 · 활동형>의 경우, ②_A는 대도시 통근형으로, 도시 인접의 전원지역에 거주하며 도시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유형으로 대도시에서 활동주택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앞서 ①_A의 유형과는 반대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나 전문직업인 등에서 이러한 유형을 많이 찾을 수 있을 듯하다. ②_B는 활동주택이 중소도시에 위치하는 형태이다.

한편, ③ <도시 · 거점-도시 · 활동형>의 경우, ③_A는 거점주택과 활동주택이 모두 도시지역에 위치하지만 소재지가 서로 다른 생활권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예컨대 주말부와 같이 일방이 대도시에서, 다른 일방이 지방 중소

도시에서 각각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와는 달리 ③_B는 거점주택과 활동주택이 같은 생활권에 위치하는 형태인데, 예컨대 서울 근교의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에서 거점주택이 있고 도심에 오피스텔 등과 같은 형태의 활동주택이 있는 경우이다⁴⁾.

④ <전원 · 거점-전원 · 활동형>의 경우, ④_A 및 ④_B는 모두 읍면 소재지에 거점주택이 위치하는 형태인데, 활동주택이 전원거점 인접지역에 위치한 전원지역인가 아니면 도시근교지역에 위치한 전원지역인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멀티헤비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례는 흔하지 않을 것 같다.

3) 멀티헤비의 성립조건과 역동성

<그림 4>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도시민의 전원지역으로의 정착 과정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거점주택과 활동주택의 관계에서 멀티헤비의 성립조건을 검토한 것이다. 여기서의 주안점은, 멀티헤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시점 및 기간 동안 당해 세대(household)가 거점주택과 활동주택을 모두 지속적으로 소유하거나 활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시나리오 A>는 도시민이 정년퇴직 후 전원으로 이주한 후에 그가 활동하던 도시지역에 새로운 활동주택을 마련하여 현재 멀티헤비의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비하여 <시나리오 B>는 정년퇴직 전에 활동주택을 마련하여 ② 시점 당시 멀티헤비 형태의 라이프스타일이었으나 퇴

그림 4. Life stage 단계별 멀티헤비의 성립조건

4) 여기서 서울 도심과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를 동일 생활권역으로 상정할 경우에 해당한다.

표 2. 도시에서 전원으로의 정주 이행 단계별 라이프스타일

이행 단계		---<교류>---		-----<반정주>-----		-----<정주>-----				
정주·반정주 형태		도시-거점 (UP)	도시-거점· 전원-활동 (UP·RS)	전원-거점· 도시-활동 (RP·US)	도시-거점· 도시-활동 (UP·US)	전원-거점· 전원-활동 (RP·RS)	전원-거점 (RP)			
라이프스타일		1. 주말체재형 - 주말전원 생활형 - 농어촌체험 관광형	2. 전원주택형 - 세컨드 하우스형	3. 전원도시 활동형 - 노후생활형	4. 주말부부형 - 지방취업형	5. 전원활동형 - 전원취업형	6. 도시통근형 - 도시출퇴근형	7. 건강증진형 - 노후생활형	8. 원격근무형 - Telework형	9. 귀농형 - 지방취업형
개념 및 정의		평일은 도심 에서 일생활 활동을 하고 주 말은 농어산 촌의 전원에 서 관광, 체 험, 여가를 즐기는 형태	도시에 거점 주택을, 전원 지역에 활동 주택을 가진 형태	전원에 거점 주택을, 도시 지역에 활동 주택을 가진 형태	도시에 거점 주택을, 또다 른 도시에 활 동주택을 가 진 형태	전원거점지 역에 거점주 택을, 전원지 역에 활동주 택을 가진 형 태	도시 인접의 전원지역에 서 거주하며 도심의 직장 으로 출퇴근 하는 형태	건강상의 이 유 또는 퇴직 후 여가 등을 위해 전원으로 이주하는 형태	전원지역에 서 정보통신 수단을 활용 한 재택근무 나 예술활동 등의 형태	도시에서 전 원으로 정착 하여 그 지역 에서 정주하 는 형태
(활동)주택 사례		ex. 주말체험 농장/펜션주 택	ex. 전원주택/ 콘도미니엄/ 주말별장/농 가주택	ex. 도시아파 트/도시자녀 아파트	ex. 지방주택/ 지방아파트	ex.전원주택/ 농가주택	ex.전원주택/ 농가주택	ex.은퇴자전 원마을/전원 주택/타운하 우스	ex.전원마을/ 예술인촌/동 호인마을	ex.농가주택/ 전원주택/펜 션주택(경영)
거점주택 (Primary)	도시(UP)	○	○		○					
	전원(RP)			○		○	○	○	○	○
활동주택 (Secondary)	도시(US)			○	○			△	△	
	전원(RS)		○			○			△	△
숙박시설	도시						△	△	△	
	전원	○								△
(활동)주택 숙박시설	방문빈도	대(5도2촌)	대·중 (5도2촌)	대·중 (5촌2도)	대	대·중	대(5촌2도)	중·소	대·중	중·소
	방문기간	단기	단기·중기	단기·중기	단기·중기	단기·중기	초단기	초단기·단기	초단기·단기	초단기

※ 범례 (○: 그렇다, △: 약간그렇다), (방문빈도: 대(주1-2회정도)/중(월1-2회정도)/소(연1-2회정도)), (방문기간: 단기(주1-2일)/중(주3-4일)/장(주5일 이 상)/초단기(반나절 또는 하루))

직 후 도시주택을 처분하고 전원으로 귀농한 결과, ③ 현
재는 멀티메비가 성립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 같이 본고에서 논하는 멀티메비의 개념에서, 제시하
는 성립조건이 2주택 이상의 주택 중에서 거점주택과 활
동주택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까닭에, 개인에 있어 시
간의 경과에 따른 멀티메비의 성립조건은 매우 역동적이다.

4) 교류에서 정주까지 이행 단계별 라이프스타일

도시에서 전원지역으로 도시민이 정주해 가는 과정을
라이프스타일 이행 행태에 따라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도시에서 전원지역으로 이주하는 일반적인 프로
세스인 “정보교류인구⁵⁾→교류인구→반정주인구→정주인
구”의 맥락에서 본다면, 반정주란 정주를 전제로 한 과도
기적 형태로 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멀티메비는 반정
주의 인구가 취하는 주생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유형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 주말체재형’은 도시지역에 거점주택은 있으나
전원지역에 전용의 활동주택이 없어, 평일은 도심에서 일

생활을 하고 주말 등은 전원지역의 숙박시설을 이용하
여 농어촌 체험 등을 실천하는 것으로, 예컨대 5도2촌(5
都2村)형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으로, ‘2. 전
원주택형’~‘5. 전원활동형’은 반정주 형태의 이행 단계로
본고의 멀티메비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멀티메비의 성립조건으로 거
점주택과 활동주택의 개념이 존재하여야 한다. 주말체재
형과 다른 점은, 멀티메비에 있어서 활동주택의 개념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되고 지속되는 주생활 라이프스타일
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 다음으로, ‘전원-거
점(RP)’ 단계인 ‘6. 도시통근형’~‘9. 귀농형’은 전원지역으
로의 정주를 나타낸다. 여기서의 정주 라이프스타일은 기
본적으로 전원지역에 거점주택이 있지만 도시지역에 활동
주택이 없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
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활동주택을 마련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표에서는 ‘△:
약간 그렇다’의 표기를 병기하였다. <표 2>의 라이프스타
일은 정주 이행 단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
를 나열할 것이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라이프스타
일이 존재할 것이다.

한편, 이들 라이프스타일의 구체적 사례현황을 고찰하

5) 정보교류인구(情報交流人口)란 기초 지자체가 관할 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터넷, 우편이나 팩스 등과 같은 정보제
공 서비스를 하면서 등록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정보교류인구’의 형태로 추계하고 있다(최정민, 2010: 92).

여 국내 멀티헤비의 전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례A는 '1. 주말체재형'으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민의 농촌지역으로의 교류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현행 숙박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점을 모색한 것이다. 사례B는 '6. 도시통근형' 라이프스타일로서 대도시 에 인접하여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주생활 패턴 현황 조사이다. 마지막 사례C는 최근 본사 기능의 일부가 제주도로 옮겨 감에 따라 함께 이주한 IT기업 직원들의 주거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과연 1일 생활권에 있는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멀티헤비가 정착가능한 지를 가늠하기 위한 조사이다. 그런데 사례C는 <표 2>의 구분에서 소속 유형이 모호하여 '3. 전원체재 도시활동형'과 '8. 원격근무형'에 가까운 형태로 일단 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직원들 개인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망라해서 일반적 경향으로 정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하에선 각 사례의 구체적 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III. 멀티헤비 관련 라이프스타일 사례조사

1. 사례A: 농어촌 체험사업과 숙박시설 현황조사

여기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전통테마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민의 교류단계에 있어서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주거 및 숙박시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지역의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2007년 당시 농림부 발표 자료에 의거하여 우수 체험마을로 소개된 지역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동시에 체험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도시민의 수요가 많으면서 자연환경이 유사한 구역을 묶어서 경기 및 강원권으로 지역을 한정하였다. 대상지역의 선정기준은, 선행연구에서 멀티헤비를 실현하기 위한 수도권 도시민의 교통 소요 희망시간을 조사한 결과, 편도 2~3시간을 가장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기 및 강원권에는 체험사업이 활성화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내륙지방의 농어촌체험사업과는 다른 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로 추가하였다. 그런 다

표 3. 농어촌 체험사업 현장조사 대상지역의 현황

지역	마을 이름 및 사진	가구수	주소득원	사업종류 및 시작년도	주요 체험 프로그램
경기	가루매마을	38	신고배	녹색농촌 (2007년)	배, 채소
경기	부래미마을	30	쌀	녹색농촌 (2003년)	농산물 수확
경기	포도향이흐르는마을	168	포도, 난	녹색농촌 (2007년)	포도체험, 난 농장, 승마체험장, 토속찜질방, 원두막
경기	버섯구지마을	40	포도, 사과	녹색농촌 (2007년)	계절에 따른 농촌 및 농사체험, 전통놀이, 전통음식체험, 자연생태 축제
경기	아홉마지기마을	130	조, 수수, 갯, 전통장, 사과	녹색농촌 (2006년)	농촌생활, 시골놀이, 자연생태 축제
강원	하도문쌈채마을	114	쌈채, 쌀, 호박	녹색농촌 (2007년)	비닐하우스내 수확체험
강원	의야지바람마을	49	감자, 배추, 당근, 양파	녹색농촌 (2007년)	치즈만들기, 찜만들기, 양말이
강원	해살이마을	148	쌀, 고추, 옥수수, 감자, 채소, 버섯	전통테마 (2005년)	감자, 고구마, 옥수수 체험
제주	혼인지마을	500	관광업, 농업	녹색농촌 (2004년)	낚시체험, 해수욕, 새우배 등 바다 체험, 제주돼지체험, 설화체험 등 전통과 관광자원 체험

음 확보된 리스트 중에서 사업 운영이 활성화되었다고 매스컴 등에 익히 알려진 곳으로 대상지역을 좁혀, <표 3>과 같이 최종 8개의 녹색농촌체험마을과 1개의 전통테마마을을 선정하였다.

1) 농어촌 체험사업의 개요 및 현황

정부 및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농어촌 체험사업은 지역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단위사업으로, 도농교류를 통한 농가 소득향상이 주목적이다. 사업별로 성격이 다소 다르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해당 부처의 사업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시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이관되어 자체 규정을 따른다. 체험사업의 특징은 마을 단위를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과 열정을 중시한다는 점, 행정기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이 결정되고 집행된다는 점이다(김주원, 2003: 106).

대표적인 이들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사업의 내용을 비교·정리한 것이 <표 4>인데, 공통적으로 농가소득향상을 목표로 하는 체험형 도농교류 사업으로, 체험 대상이 농촌 ‘자연환경’인지 또는 ‘전통문화유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두 사업 모두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장개방 등 외부 위협 요인을 극복하고 마을 자체의 노력을 유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립되고 차별화된 마을을 만듦으로서 도농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⁶⁾. 현재 이들 사업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은 677개소(2008년 기준)가 개설 중이며 2017년까지 85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통테마마을은 160개소(2007년 기준)개설중이며 2009년까지 17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업 간에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프로

그램의 차별화’로서 두 사업 간 목적 및 프로그램의 유사성으로 지역적 차별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김재호, 2007).

2) 농어촌 체험사업에서 숙박시설 종류와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도시민의 농어촌관광의 패턴은 휴양과 더불어 경험과 교육을 더욱 중시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교통 발달은 이러한 새로운 농촌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 농어촌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며 경험하는 단순·일회적 경험이 아닌, 전원지역에서 어메니티를 찾고 농경문화의 값진 경험과 전통의 재발견을 통한 교육적 효과 배가와 같이 복합·반복적인 체험형 형태로 변하고 있다. 이렇듯 농어촌 체험관광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 있어 체험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징을 잘 반영한 다양한 체험거리(프로그램)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단위 마을이 체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지역의 고유성만을 강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찌되었던 도시민을 위한 숙박시설은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방문·체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체험사업의 전원지역에서 제공되는 숙박시설과 서비스는 일반 관광지의 그것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표 5>는 현재 우리나라 농촌체험사업에서 지원되고 있는 숙박시설의 종류를 나열하여 본 것이다. 표의 상단 부분은 각종 숙박시설에 대한 정의와 근거법령 등 일반적 사항을 나타낸 것이며, 하단 부분은 이번 현황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사업 지원 숙박시설은 조사대상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개소수와 지원 기능의 활성화 정도에 있어서 민박, 펜션, 체험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시설은 마을에 따라 간헐적으로 운용되었다. 둘째, 인터뷰 조사 결과, 대부분의 운영 및 관리주체는 체험사업에 있어서 숙박시설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관할 행정지원이 주민들의 요구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제도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도시민의 수요가 일정치 못한 상황에서 숙박시설(특히 민박)의 적극적 투자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숙박시설 정비의 과제로 파악되었다. 셋째, 따라서 그린투어리즘의 숙박시설에 있어서 도시민의 기호에 맞는 프라이버시 확보, 시설의 현대화, 적정 이용가격, 체험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 아래는 현장조사 체험마을 중에서 특징적인 두 사례를 추출하여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한다.

3) 심층 사례분석: 부래미마을 및 아홉마지기마을

(1) 부래미마을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부래미마을은 체험마을 운영에 있어 숙박시설 지원이 우수한 사례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 대상 마을이 공통적으로 지원 사업비의 예산 하에 숙

표 4.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 비교

구분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비전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	
키워드	체험성	전통성, 지역정체성
사업 목표	농촌체험 관광을 통한 농촌활성화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	지역 고유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활성화 도모
사업 주체	• 주관: 농림부 • 시행주체: 시장, 군수	• 주관: 농촌진흥청 • 시행주체: 도지사
사업 현황	• 사업기간: 2002~2017년 (계속) • 총사업비: 1,276억원 • 선정마을:	• 사업기간: 2002~2009년 • 총사업비: 160억원 • 선정마을:
프로그램	• 주말농장 농사체험 • 특산물 위주 수확체험	• 전통문화자원 체험 • 농사체험프로그램 구비
숙박 시설	민박, 펜션, 체험관 등	민박, 펜션, 체험관 등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사업시행지침 재정리, 2008)

6)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의 해당 사업 시행지침 내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에 근거한다.

표 5. 농어촌 체험사업에서 주요 숙박시설의 분류 및 특성 비교

		민박	펜션	체험관	컨버전	텐트	캠핑카
일반 내용	정의 및 근거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관광객이 숙박, 취사와 자연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 기타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함, 이러한 폐교재산을 바탕으로 교육용,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 재활용하는 것	텐트를 이용하여 숙영하는 형태로, 전원의 느낌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으며 비용이 저렴하지만, 계절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자체 세면, 취사시설 등 편의시설이 없음	캠핑카를 이용하여 전원에서 숙박하는 형태
	목적 및 기능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민박수요가 있는 농촌 지역에 조성	농어촌의 소자본과 농지 등을 활용한 관광사업	체험·휴양공간으로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기반 구축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	전용장비를 이용한 야외 숙박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 및 레저
	관련 법규	- 농어촌정비법 - 공중위생관리법 중 숙박업에서는 제외(객실7실 이하의 경우)	제주도개발특별법 없음(7실 이하인 경우 민박으로 인정/단지형(외지인투자용)은 숙박업으로 간주)	- 농어촌정비법 - 농림부 및 지자체 관련사업계획 세부 사항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없음	없음(*주3)
	운영 형태	- 농가부업형 - 농가전업형 - 소규모 펜션형(*주1)	- 단독형·단지형 - 자가경영형·위탁관리형 - 일체형방갈로형(*주2)	- 체험형	- 교육용 - 사회복지시설 - 문화시설 - 공공체육시설 - 소득증대시설	없음	- 임대형
	운영 주체	농업인	농업인, 외부사업자, 투자자	농업인, 마을조직	지자체, 마을조직	마을조직	개별사용자
	이용 가능 범위	숙박·취사	숙박·취사	숙박·체험휴양·판매	숙박·취사체험·판매	숙박	숙박·취사
	지원	가구당 1천5만원 융자(농림부)	없음	마을당 2억 중 체험기반시설용도 사용	- 용도별 대부금 감액 - 체험마을지원금	직접적인 지원 없음	없음
실태 조사	장점	농사체험과 함께 농촌 체험의 취지가 이어지며 지역민과의 교류의 장이 됨, 기존시설 이용으로 시설비용 감소되며 농가소득 향상에 도 기여함	시설이 양호하고, 단위 별 프라이버시 보장이 가능	전원에서 테마체험을 바탕으로 한 단체생활을 맞출 수 있음	기존 유희시설 활용으로 투자비를 줄일 수 있으며 건물수명연장에도 기여함	장비가 저렴하고 탄력적으로 수용인원에 대응 가능, 장소에 제약이 적고 이용비용이 저렴함	시간, 날씨에 영향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 이동 및 설치의 자율성이 확보됨
	개설	(가구 당) 1-2개	2개 이상	(단체실) 1-2개	(단체실) 1개 이상	1개 이상	1개 이상
	수용 인원	(실별) 4-10인	4-15인	30인 이상	50인 이상	4인	2-4인 이상
	장소	기존 취락지역	경관 우수지역	체험지역 인근	기존 폐교, 농가	체험관 인근지역	장소 무관
	프로그램 연계	목음상품, 예약제 운영(농촌체험의 연장선)	목음상품, 기타 개별 이용 가능	체험프로그램과목음 상품	체험프로그램과목음 상품	목음상품, 기타 개별 이용 불가능	프로그램 이용 보다는 휴양의 목적
	문제점	단위 별 주거시설이 열악하여 소음,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 발생, 체험인원이 상시로 있지 않은 경우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음	이용료가 비싸고, 체험장과 인접하지 않아 이용성이 떨어짐, 초기 시설비용이 많이 듦	일정 규모의 인원 이상만 사용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음, 시설비용이 많이 드나 지자체 지원 가능함	기존 숙박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어서 취사, 위생 등의 용도에 부적합 함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한 해 일시적 사용만 가능함	교류나 체험의 취지가 약하고, 비교적 대여료가 비싼편임

*자료: *주1-박시현외(2003), *주2-오동훈(2003),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 *주3-자동차관리법에서 일부 준용한다.

박시설 확보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부래미마을은 주민단합 및 정부지원에 의해 이러 어려움을 잘 극복한 사례로 보인다<그림 5>.

<그림 5a>는 새로 건설된 마을의 체험관인데, 2003년 처음 시행 시 마을회관에 체험관을 건립하였으나 체험프로그램이 점차 활성화 되어 방문객이 증가하기 시작하였

다. 이에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농림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2007년 신축한 것이 바로 이것으로서, 규모는 지상 2층이며 각 개실은 식당과 강당으로 사용 중이다. 한편, 오른쪽 사진은 체험관 옆에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숙박동인데, 체험관과 연계하여 숙박객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며 3개동의 건물로 구성되

주소	경기도 이천시 울면 석산2리 40번지
가구수 및 주소득원	가구수: 30여가구 주소득원: 쌀
사업기간	6년(2003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
프로그램	계절별 농사체험, 놀이/풍습체험 등
숙박시설	체험관, 숙박동, 민박

a. 체험관 b. 숙박동
그림 5. 부래미마을의 개요 및 체험관, 숙박동

어 있는데, 규모는 80여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이 시설은 주로 단체이용객이 사용하며, 가족단위는 소규모인 농가 민박을 주로 이용한다고 한다.

이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은, 우수한 ‘숙박전용시설’의 확보라는 것이다. 즉, 대다수의 체험마을에서 마을의 체험관을 숙박시설로 겸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여기서는 별도의 숙박전용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여타의 체험마을과 별 차이가 없지만, 체험관의 신축과 더불어 숙박전용시설까지 갖추으로써 체험사업의 운영 기반이 잘 정비되어 도시민들의 기호와 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특징은, 첫째 ‘주민의 목표의식에 의한 공동운영’이 특징이다. 체험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 마을의 소득창출이라는 공동목표를 갖고 공동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여타 마을에 비해 소규모 가구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체험인원의 대응과 숙박시설 확보를 이루어 낼 수 있다. 둘째, ‘전문인력에 의한 대응’이라는 점이다. 농번기에는 농사일에 바쁜 주민들을 대신하여 별도의 상시 거주 전문고용인을 채용하였다. 인터넷 접수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도시민의 문의에 대한 대응과 정보제공을 용이토록 하고 있다.

(2) 아홉마지기 마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아홉마지기마을은 내천, 산지 등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농촌체험이나 관광방면으로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다. 농사를 통한 소득 확보가 어려워지자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조 수확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시설 확보에 관심을 가진 사례이다<그림 6>.

숙박시설의 운영현황을 보면, 체험관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며 체험공간과 숙박공간을 갖추고 있다. 규모는 2개의 대규모 객실(실당 40명 정원)을 가지고 있으며, 취사 가능하고 마을의 도우미지원도 가능하다. 수익금은 마을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된다. 마을의 민박 사업에는 농가 20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6여 가구는 4실 이상을 가진 규모이며, 나머지는 1~2실 규모이다. 인원이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286
가구수 및 주소득원	가구수: 130여가구 (54가구 회원 가입) 주소득원: 잣, 조(논, 밭농사 비율이 낮음)
사업기간	3년(2006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
프로그램	수확체험, 풍습체험의 교육 등
숙박시설	체험관, 민박, 펜션

a. 체험관 b. 펜션
그림 6. 아홉마지기마을의 체험관 및 펜션시설

소규모이거나 공동 숙박을 꺼려하는 이용객이 주로 이용한다. 수익은 전액 소유자 몫이 되는 분배 구조이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도시민에게 시설 개선이 중요하나, 자금문제로 대실이 주인세대와 분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게다가 도시민들은 민박이용 시 개별위생 및 취사시설을 중시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불평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민박 운영 농가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녹녹치 않은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시설이 양호한 민박 농가로 이용객이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⁷⁾. 기존연구에서도 체험사업에서의 불편사항 및 희망 개선사항 1순위는 숙박시설과 체험프로그램이 동일하게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이샘외, 2009).

마을주변에 관광지(용추계곡)가 위치한 관계로 많은 시설 펜션이 운영 중이다. 또한 이 마을의 특징은 체험 숙박시설(체험관)로부터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을단위의 체험관을 지양하고 가능한 외부 이용객을 민박 농가별로 배분하여 체험과 숙박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마을단위의 사업에 있어 각 농가의 원활한 참여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이 농촌 경쟁력 강화의 주요 과제임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례B: 도시통근형 라이프스타일 현황조사

1) 현장조사의 개요⁸⁾

본 사례는 전원지역에 거점주택이 있어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다. 그들의 자세한 라이프스타일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심층 밀착분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매스컴에서 이슈화된 인물을 추적하였다. 인터뷰조사에 적합한 인물로, 매스컴에 널리 기사화되었고 도

7) 민박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박시현의(2003, 47:52)에서 잘 적시되어 있다. 예컨대, 도시민은 개별출입구의 부속화장실을 갖춘 시설을 희망하지만 영세 민박의 경우 그렇지 못하고, 숙박비를 신용카드 결제하기를 희망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8) 조사내용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 수집 표본의 대표성과 크기가 중요한데, 본 현황조사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극히 일부 사례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주소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리
지역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서울)에 근접한 전원마을 • 현재 120여 가구로 주말주택 중심으로 마을 형성 • 원주민과 이주민이 섞여 있으며 논농사, 밭농사에 이주민들도 참여 • 지형상 도심과 직선거리는 가까우나 산맥이 둘러져 있어 외지머 상업적 시설이 없음(이런 지형여건이 단일적, 안정적 주거지 형성에 기여) • 전문직, 자유직 종사자가 많음 • 도시민과 생활패턴이 반대여서 이동 간 혼잡이 적음
교통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전철망의 개설로 도심으로 출퇴근이 가능 • 서울 잠실에서 자동차로 1시간 내 이동 가능

a. 마을 전경 b. 장씨 거주지(인터뷰 장소)

그림 7. 현장조사 지역정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농 상생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교류하며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는 ‘장○○’(45세, 남)씨를 선정하여 접촉, 2008년 8월 서울 직장에서 예비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인터뷰에서는 도시에서 전원으로 이주하여 도시로 출퇴근하게 된 동기와 목적, 전원생활,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후 실시된 본조사는 경기도 서종면에 위치한 그의 거점주택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곳에서 그와 유사하게 이곳에 이주하여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3명과 더불어 인터뷰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림 7>은 현장조사가 실시된 마을의 지역정보이다.

2) 심층조사 내용

<표 6>은 조사대상 4명의 프로파일을, <표 7>은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인터뷰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답변한 의견

표 6.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도시출근형 거주자의 인터뷰조사

	추(남)	박(남)	김(남)	장(남)
직장 소재	서울 종로구	서울 송파구	서울 중구	서울 중랑구
직업	회사원	전화국	잡지사	자영업(물산)
교통 수단	광역 전철망 (편도 2시간)	자가용 (편도 1시간)	자가용 (편도 1시간)	자가용 (편도 1시간)
이주 동기	10여년전부터 전원주택에 관 심을 갖고 이주 결정	자녀들의 건강 상의 이유에서 (아토피)	은퇴 후 전원 이주를 위한 선 적응의 과정을 위해	시골 출신이라 (남양주) 시골 정취를 동경했 기에
정착 과정	초기 정착 시 지주, 개발업자, 분양업자가 분 리되어 있어, 전 원주택 구매자 들의 정착에 어 려움이 있었음 (금전적 이해관 계가 맞물려 3 년간 소송)	초기 옆 마을에 이주하여 지역 행사 및 원주민 과의 교류를 통 하여 원활히 정 착에 성공	여러 루트를 통 한 정보 습득과 답사로 도심과 의 접근성과 지 역민과의 융화 를 위한 주택규 모 형태 결정 후 체험과정을 거친 후 서서히 정착	전원생활은 오 래 전부터 준비 하고 있었으나 가족들의 반대 로 겨우 설득해 현 거주지 근처 에서 전세로 시 작. 농가를 집 수리 하여 생활

표 7. 도시출근형 거주자의 의견 종합

Q1. 거주지로서 농어촌에 대한 인식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릴 적 전원생활의 경험이 있어 은퇴 혹은 더 늦기 전에 다시 전원으로 돌아가 자연친화적 생활을 하고 싶었으며, 농어산촌에 대한 동경이 늘 있어왔음. • 외부인들의 경우 농어산촌 생활의 경험이 없고, 기존 커뮤니티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으나 자연조건이 이러한 단점을 상쇄한다고 생각하며, 이웃과 자녀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
Q2. 일상의 주생활 라이프스타일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에서는 직장생활, 편의시설 이용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농촌에서는 농사, 지역민과의 커뮤니티 활동 등을 함.
Q3. 현재의 주생활 패턴에 대한 만족도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출퇴근이나 이동 과정에 대한 불만이 없으며, 교육, 의료 등에 있어서도 대체로 만족함.
Q4. 이웃 주민과의 커뮤니티활동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전히 배타적이며, 특히 귀농 형태가 아닌 단순 체류형이나 주말별강형의 경우는 교류가 없어 커뮤니티 형성이 되지 않음. 3~5년 정도의 체류 오랜 시간과 더불어 지역민과 만나서 나누는 인사예절, 지역행사의 적극적 참여, 상호부조 등이 지역민들로부터 그들의 일원으로 인식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Q5. 원주민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 특성 상 각종 경조사, 체육대회, 회식 등의 행사의 적극 참여와 품앗이가 필요함. • 특히, 이러한 활동 없이 도심으로 단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만 체류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되지만 지역민과의 교류가 없어 적응에 어려움이 생기며, 향후 지역민과 트러블 발생 시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더러 있음.
Q6. 도시민들의 농어촌 지역으로의 이주 등에 대한 의견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도시민이 다양한 이유로 전원생활을 희망한다고 생각함. 그 형태는 주말전원주택형, 귀농형, 도심출퇴근형이 주가 되며, 특히 유년기에 있어서 농촌생활 경험이 있는 경우 희망의 정도는 강하다고 봄.
Q7. 전원생활을 실행함에 있어서 걸림돌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교육은 지방의 경우로 교육열이 높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며, 오히려 자연에서 자라 정서 함양과 건강에 유리하다고 생각함. • 주택 구입비용은 대개 소규모로 전원주택을 마련하므로 퇴직금, 여유자금의 범위 내에서 구입가능하다고 봄. • 생활비 또한 자금자족과 지역물가, 지자체 지원 등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교통은 도심과 인접 해 출퇴근 및 편의시설 이용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음.
Q8. 멀티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보면, 세컨하우스로서 전원주택의 보유가 가능한 상황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나 지방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1가구 2주택 세제와 같은 규제가 여전히 존재함. 전원형 주택의 보유가 지방 부동산 가격상승과 직접 영향은 적으므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주택의 경우, 주소지의 복수 등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자체의 재원해탈을 받는데 있어 걸림돌이 됨. • 지자체의 도시민 유인 정책도 은퇴자 중심의 전원형 마을 형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기존 지역 마을과의 고립, 기반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재, 커뮤니티 형성의 어려움 등 문제가 많다고 생각함.

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이 지역은 서울 도심(동남권 및 동북권)까지 자가용으로 1시간 정도(늦어도 2시간 이내)에 출퇴근 가능하다는 지리적 여건으로 외지인의 주말전원형 주택이 제법 있는 곳이다. 이들 4명은 소위 베이비붐 세대들로, 유년시절 전원 경험이 있어 농어촌을 동경하여 왔고, 건강 등의 이유로 이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인데 모두 지역 원주민과 좋은 유대관계 속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모두 전원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원주민과의 지속적인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인터뷰 답변내용으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원주민과의 지속적인 교류활동 등 커뮤니티 유지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도시통근형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직장에서 자동차로 1~2시간 정도 이내의 거리여야하며, 이보다 멀리 떨어진 거리는 교통기반의 정비를 통해 2시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 셋째, 향후 멀티헤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1가구 2주택 중과세와 같은 현행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3. 사례C: 원격근무형 라이프스타일 현황조사

1) 현장조사의 개요⁹⁾

사례C는 다음(Daum) GMC를 방문하여, 멀티헤비 관련 직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현황 등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목적은 항공편의 발달로 제주도까지 일일생활권이 가능해진만큼 향후 국내 멀티헤비가 정착·발전하게 되면, 제주도 또한 멀티헤비 라이프스타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국내외에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멀티헤비 라이프스타일도 내륙지방과는 달리 관광휴양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심층조사 내용

GMC의 근무환경을 살펴보면, 자유로운 창의력을 중시하는 사풍으로 말미암아 건축물내 공간의 이용형태나 서비스는 일반 기업과 비교할 때 매우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림 8>과 같이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룸’으로 게임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음료 및 간식식사를 할 수 있는 북카페와 같은 휴게공간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기타 체력단련실, 탁구장, 다양한 공간 규모의 회의실(1인실-원격화상회의용) 등을 갖추었다. 게다가 싱글세대 등을 위한 빨래방, 야외 바비큐장 등의 시설도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 마치 집에서 근무하는 것 같이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였다.

직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주생활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원들은 대부분 서울·수도권에 연고지를 두고 이곳으로 전근 왔으며, 업무상 왕래에 따른 항공비용은 회사에서 보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주거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정액제 보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

회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제주도 제주시 오동동 1730-8 • 위치: 도내 교외 지역에 위치(2006년 완공 후 이전) • 인원: 전사 900여명 중 제주지사에 180여명 근무 • 180여명 중 약 90% 서울권에서 이주, 나머지 지역민 • 6개월 단위로 근무자 희망 여부에 따라 근무지 결정
근무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친화적 근무환경 • 회사 이전 후 자의에 의한 지방근무 형태 • 인터넷 기반 산업에 종사 • 직원 평균 연령은 약 30세 • 이주 후 직장 및 거주 만족도는 높은 편임

a. 개방형 오피스

b. 게임룸
(창의력 증진의 휴게공간)

그림 8. Daum 제주 글로벌미디어센터의 현장조사

원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라 단신세대가 많으며 초소형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 별도 숙소를 마련하여 사원들에게 일부 임대하고 있으나 수량은 미미한 편이다. 한편, 제주도로 이주 후 직원들의 라이프스타일은 크게 자연친화형과 도심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혼 직원들은 주로 자연친화형이 많은데 반해 미혼은 도심형을 선호한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심지어 서울 근무 직원들의 상당수도 이곳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미혼 단신세대가 많아 일반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회사 내 장기 근속사원 및 가족세대 직원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향후 일반아파트 등 적절한 주거시설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제주에는 독특한 풍습으로 ‘신구간’이라는 이사의 길일 풍습과 ‘죽을세(1년치 사글세)¹⁰⁾’라는 계약 방식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제주 주택시장이 육지와 달랐다. 신구간이란 이사의 길일로서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3일까지 약1주일의 기간으로, 양력으로 환산하면 개략 1월 하순~2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간인데 이 한차례를 이용하여 대부분 이사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직원의 근무지 이동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신구간과 같은 이사 풍습을 맞출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이를 대비한 주택의 매물이나 임대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제주도라는 근무조건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이 자유로운 IT기업의

9) 본고에서 제주도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멀티헤비라는 동적 라이프스타일의 전개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정하였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실제 이곳에서 멀티헤비를 실현하고 있는 다수의 개인과 기업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터에, 마침 기업의 본사 기능 일부 이전으로 매스컴에 널리 보도된 다음(Daum)의 경우는 매우 매력적인 사례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사례는 특정 기업의 경우로 조사내용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의 대표성과 일반성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10) 제주에는 전월세는 거의 없고 계약과 동시에 일년치 집세인 죽을세를 내야한다. 보통 일년을 계약하는데, 신구간에서 다음 신구간까지가 계약기간이 된다. 신구간이 아닌 때 계약하더라도 보통 입주 일로부터 다음 신구간까지 얼마를 지불하는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독특한 임대방식은 신구간 이사풍습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http://www.chejuguide.com>).

특성상 이러한 원거리무형 기업은 향후 이곳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의 장애가 커 5도2촌처럼 내륙 도시로부터의 빈번한 왕래에 의한 멀티헤비는 현실적으로 극히 일부에게로만 제한될 것이라는 점, 셋째 본 사례와 같이 직장을 따라 전원거점형 지역으로 이주하고 이곳에서 거점주택을 마련하여 그것이 일종의 활동주택의 역할도 부분적으로 겸하게 된다면, 본고에서 정의한 <전원·거점-전원·활동형>의 멀티헤비로의 전개는 매우 제한된다는 점이다.

IV. 결 론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하였던 멀티헤비의 개념적 정의와 특성을 더욱 확장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멀티헤비와 라이프스타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화하였다. 동시에 이렇게 유형화한 사례 중에서 교류형, 정주형, 특수형 등 세 가지 형태의 라이프스타일을 추출하여, 현장 실태 및 인터뷰조사를 통해 이들 라이프스타일의 전개 양상과 국내 멀티헤비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모았다.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멀티헤비 관련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거점주택과 활동주택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거점주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는 1개소의 주택으로 정의한 반면, 활동주택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등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주택으로 1개소 이상으로 정의하고, 이 때 일정 시점에 있어서 거점주택과 활동주택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며 세대에 있어서 멀티헤비가 성립하는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거점주택과 활동주택이 도시지역과 전원지역에 각각 위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형태를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지역의 공간 규모와 위상관계에 따라 도시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전원지역은 도시근교형, 전원거점형, 전원형으로 분류하여 각 형태에서 전개되는 특성을 상호 비교하였다.

셋째, 멀티헤비의 성립조건을 시간경과라는 프리즘에 비추어 그 역동성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정리하였고, 나아가 도시민의 정주 이행 단계별 예상되는 9가지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 그 성립조건과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넷째, 도시민 교류인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체험사업(사례A) 9곳을 현장방문 인터뷰 조사하여 숙박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체험사업의 숙박시설에 있어 민박, 펜션, 체험관 순으로 이용 빈도가 높았으며, 관련 운영자들이 체험사업에서 숙박시설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민박의 경우 농가의 경제상황과 행정의 지원예산 등 현실적 한계로 열악한 시설이 도시민의 체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농촌체험형 동농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박 등 주거시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원지역 정주 형태인 도시통근형 라이프스타

일 현황조사(사례B)에서는, 지역원주민과의 커뮤니티 유지를 위해 이주민의 교류증진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과, 향후 멀티헤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섯째, 제주도라는 전원거점형 지역이자 특수 관광지역에 원거리무형과 유사한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생활 실태(사례C)를 통해 멀티헤비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보았는데, 이주 직원들의 생활 만족도는 대체로 높으나 여전히 제주도는 교통 장애의 벽으로 말미암아 빈번한 왕래 형태의 멀티헤비는 현실적으로 극히 일부 전문직이나 자유직에게로만 제한될 것으로 내다보였다.

본고의 한계로는, <표 2>에서 제시한 9가지의 라이프스타일 중에서 특히 멀티헤비에 직접 관련된 “2. 전원주택형~5. 전원활동형”의 각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현장밀착형 분석이 부족하였는데, 향후의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1. 강평년(2005), 도시민의 농촌관광지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18(3), 3-21.
2. 김재호(2007), 그린 투어리즘에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과 민속의 활용, 한국민속학, 46, 7-42.
3. 김주원(2003), 인센티브형 상향식 농촌개발전략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국토계획, 38(4), 103-121.
4. 문혁·조리라·가중순(2007), 국내 펜션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 조형연구소논문집, 7(2), 149-183.
5. 박덕병·이민수(2006), 농촌관광마을 농가민박 편의시설 소바자 선호, 농촌관광연구, 13(2), 41-62.
6. 박시현·박주영·성주인(2003), 농가숙박업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농업연구, 10(1), 45-60.
7. 송광인외(2005)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에 관한 연구, 농촌관광연구 12(2), 1-31.
8. 송미령·임경수·전호상(2006), 귀농·귀촌 이야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송화성·박석희(2006), 라이프스타일이 농촌어메니티자원 선호 및 농촌관광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농촌관광연구, 13(2), 85-106.
10. 오동훈·박선영·이재순(2003), 우리나라 펜션하우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8(5), 139-151.
11. 이샘·신해식·모영문·신효중(2009),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성향과 선호도 분석, 농촌관광연구, 16(1), 75-102.
12. 이창석·이희국(2003), 고급민박주택의 주변경에 관한 연구-경기지역의 펜션을 중심으로, 부동산학보, 21, 16-42.
13. 최정민·양재섭·김창기(2006),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도쿄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7(3), 31-50.
14. 최정민(2010) 멀티헤비테이션의 발전 가능성 및 수요특성 분석, 한국주거학회, 21(1), 89-101.
15. 최효승(2005), 농촌마을만들기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 7(1), 39-50.
16. 허지현·최현식·최영민(2008), 관광자의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농촌체험관광형태별 선호도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0(3), 87-107.

접수일(2010. 2. 11)

수정일(1차: 2010. 5. 17)

게재확정일자(2010. 5. 31)